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아버지 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고있다.

수령영생의 새장을 펼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첫 년대에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 인류앞에 쌓아올린 절세위인의 혁명업적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절감하였으며 태양의 력사는 영원불멸하리라 하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리 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원수님께서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치시며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개척해온 억척의 힘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가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모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추모대회는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중앙추모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 악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 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은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를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를

그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우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조국과 민족,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어 우리나라를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이 지난 10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신념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빛나는 새 승리를 향하여, 주체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본사기자

사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업적은 천 추 만 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겨레의 절절한 그리움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만 가고있다.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추모의 열기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망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의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대성인인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통일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앞당겨 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멸불후의 로고를 바쳐 오셨었다.

언제나 자신께서는 어린시절 38°선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분렬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각하였지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하나가 된 강토에서 자주적인 삶을 누리며 확고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예지로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정경,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혈맥을 이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

일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론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온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높이 들고나가는 할 강령적지침들을 마련하여주시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두고 언제나 마음씨오신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차례나 판문점을 찾으시어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곤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철폐비담에서 오래도록 결심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었다.

언제나 외국어 외국의 한 언론사대 표단이 그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고 질문을 드리었을 때에도 자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절절히 심중을 터놓으시기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한평생을 바쳐오셨었다.

불타는 애국헌신의 열기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통일을 위한 로고의 낮과 밤, 날과 달들을 이어 오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력사적인 6.15통일사대를 펼쳐놓으심으로써 반목과 질시, 대결과 불신이 지배하던 이 땅위에 민족적화해와 단

합,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셨었다.

이 나라 인민들 경모의 꽃 피워드린 10년 배후신 사랑 노래로 울려 퍼지고 이루신 업적 전설처럼 전해져 장군님 우리와 함께 계신 10년이어

세월의 흐름 따라 흘러온 10년이었으랴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 단발머리 내대학생이 어머니 되고 그날의 철부지가 어엿한 청년이 된 세월 단 하루도 아버지장군님 우리 마음속에 아니게진 날 없는 세월이어

그 세월엔 있지 않더나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오늘의 력사적진군길에서 더 큰 기적적승리와 영광을 안아올 찬란의 심장들의 불타는 맹세가 그대로 그리움의 노래가 되어 이 땅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그 세월엔 있지 않더나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오늘의 력사적진군길에서 더 큰 기적적승리와 영광을 안아올 찬란의 심장들의 불타는 맹세가 그대로 그리움의 노래가 되어 이 땅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을 그대로 이어서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로 겨레의 자주통일성업을 승리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내놓으신 과학적이며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령도는 내외반통일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운동이 승리로 전진할수 있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지난 9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고결한 민족애와 확고한 자주통일의지를 담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운동의 앞길을 다스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 어떤 풍파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넓은 도량과 숭고한 민족애로 겨레의 자주통일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조선민족의 돌도 없는 행운이며 무상의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와 존엄도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도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실현도 있다.

온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어머니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민족의 강성부흥과 통일변명을 위한 애국위업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고 이 땅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찬란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장군님의 위업을 꽃피워가시며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뜨겁게 맥박쳐호

르는 그이의 말씀이었다.

진정 그리하였다. 어디를 찾으시어도 무엇을 하나 구상하시고 일떠세우시어도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그이의 념원을 이 땅위에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지금도 불꽃은 려명거리리를 바라보면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새 로 일떠설 때마다 우리 인민들이 문명환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이 금시 들려오는듯싶고 원산 군민발성소연제에 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지수지를 보시었다

하시던 그이의 모습이 어려온다. 찾으시는 곳,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눈부신 새 거리의 공장들, 인민의 문화 휴식터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장군님의 유혼을 관철할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정의 세계를 어찌 말이나 글로써 다 전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전변의 력사는 이렇게 태어났다.

본사기자 김영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한생이 어린 공화국을 더욱 빛내여가실 불타는 열망,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단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로 헤쳐가시는 위대한 헌신의 위대한 장경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가는 곳마다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인민의 그리움이다.

아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오늘의 력사적진군길에서 더 큰 기적적승리와 영광을 안아올 찬란의 심장들의 불타는 맹세가 그대로 그리움의 노래가 되어 이 땅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그 세월엔 있지 않더나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오늘의 력사적진군길에서 더 큰 기적적승리와 영광을 안아올 찬란의 심장들의 불타는 맹세가 그대로 그리움의 노래가 되어 이 땅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그 세월엔 있지 않더나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오늘의 력사적진군길에서 더 큰 기적적승리와 영광을 안아올 찬란의 심장들의 불타는 맹세가 그대로 그리움의 노래가 되어 이 땅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범

10년 전년이 흘러도 만년이 흐른대도

유현의
이 활기를 띠었다. 우리측은 회담을 지연, 파탄시키려는 일본측의 책동을 분쇄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회담의 주도권은 우리측에 있었다. 한편 총련에서는 동포대중을 발동시켜 항의투쟁을 벌리면서 귀국의 배길을 영영 끊어버리려는 안팎의 반동들의 책동을 거듭 폭로 규탄하고 일본당국에 제일조선공민들의 귀국제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하였다. 드디어 일본당국은 궁지에 몰리고 우리측의 요구와 세계여론을 더는 거역할수 없게 되였으며 제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을 재개할데 대한 회담문제에 도장을 누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본사기자



삼지연시의 밤

다시 열어주신 배길

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살며 일하기때문에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수령님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가 하는것을 잘 모를수 없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담을 빨리 성사시키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고싶어하는 제일동포들의 소원을 풀어주자고 간곡하게 이르시었다. 참으로 제일동포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동포애의 정은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쏟는 친어머니의 심정 그대로였다. 그후 제일동포들의 귀국제가를 위한 조일적십자회담은 비할바없



제168차로 귀국의 배길에 오른 제일동포들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백두산정신을 지닌 위대한 인민을 키우신 불멸의 은공

백두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10년전 세계는 나름대로의 추측과 예상을 하며 오늘과 다른 눈빛으로 조선을 주시하고있었다. 지구정치의 무게변화로 이어진 대국상을 당한 조선이 과연 어떤 길을 택할것인가에 대한 억측과 혼돈의 물음표들이 집중되고있던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하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의 령정을 결심하시었다. 생눈길을 걷는 심정으로, 생눈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각오로! 생눈길, 단순히 엄동의 추위가 상시적인 위협을 가하고 때로 거목도 휘부리는 강풍과 준령이 막아서는 자연의 길을 말하는것이 아니었다. 그 길은 계승의 천만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판단장의 력사속에 사대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끈질긴 회유와 설득, 엄청난 강압과 도전을 자주와 인민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물리치며 헤쳐오신 백두의 행군길의 련속인것이다. 자주와 국제, 정의와 부정의의 대결로 압축되고 적대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이 지속되고있는 오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대들이 백두의 행군길을 노래로만 이어간다면, 유람식이나 관광식의 련속인것이다. 대국주의와 대의명분으로 물리치며 헤쳐오신 백두의 행군길의 련속인것이다. 대국주의와 대의명분으로 물리치며 헤쳐오신 백두의 행군길의 련속인것이다. 대국주의와 대의명분으로 물리치며 헤쳐오신 백두의 행군길의 련속인것이다.

전통계승, 정신무장이 최대의 국력이고 최강의 전략무기이다. 위대한 전통, 위대한 정신이 마련된 백두의 행군길에서 단 한치의 탈선도, 한걸음의 답보도 있을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수령님의 향일혈전만리, 위대한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심정으로 력사의 생눈길을 앞장서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 길은 사랑과 헌신의 길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에게 세상에 제일 부러운것이 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 경애하는 그이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위민헌신의 령정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정든 집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강성부흥의 령명을 불려주시었고 별이 익는 깊은 밤을 사색의 열정으로 밝히시며 변영의 미래를 설계하시었다. 보통의 결단과 의지로서는 각오하기 힘든 그 길은 강국의 패일을 앞당기기 위해 일각일초의 멈춤도 드림도 없이 달려야 하는 험로였고 그 공화국을 고사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와 압박속에 가슴아픈 희생도 이겨내야 하는 사생결단의 험로이기도 하였다. 그이의 자욱자욱은 혹심한 자연피해를 가시기 위해 걸으신 복변의 산사락길과 동해의 돌서덜길, 농촌마을의 진창길에도 새겨져있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기 위해

세계가 경탄한다. 강권과 부정의가 이중삼중으로 옥죄인 최악의 제재압박속에서도 팔목할만한 경이로운 기록을 펼치며 자기 특유의 변영을 창조하는 공화국인민을 《위대한 조선의 영웅인민》이라 찬탄한다. 반만년민족사를 넘어 인류사에 특기할, 위대하다그밖에 말할수 없는 영광과 행복을 마련해가는 공화국인민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빛나는 력사가 참칭증압을 이룬 백두산에 혈맥을 잇고 기적과 승리를 떨치는 마음들이 백두의 행군길, 력사의 생눈길을 헤치시며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아오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욱을 되새겨본다.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없이 찾아신 위험천만한 시험길들과 27hp의 작은 배로 과도세찬 풍랑을 헤치신 바다길에도 어려어있었다. 이렇게 조국, 인민에 대한 사랑을 용암처럼 끓이시며 력사의 생눈길, 위민헌신의 천만리를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께서 앞장서 헤치신 생눈길은 사회주의의 승리, 강성조선의 패일로 이어진 자존의 길, 백두의 길로 펼쳐졌다.

《백두산대학》의 첫 스승이 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장서 헤치신 생눈길에서 력사가 알지 못하는 《백두산대학》도 태어났다. 《백두산대학》, 그 이름만 들어도 애국열, 투쟁열이 끓어솟게 하는 고귀하고 벽찬 부름이다. 흔히 대학이라고 하면 전문기술 지식을 가르치는 높은 단계의 학교교육기관을 생각한다. 세계에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도 있고 위인과 명인들을 배출했으므로 하여 유명한 대학들도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 민족만대주의의 기초로 되고 열원이 되고 기치로 되는 전통과 정신, 신념과 의지를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 있었어보았는가. 빨치산 김대장과 백두광명성을 우리러바든 백두산을 지붕으로, 교단으로 하고 수많은 항일영웅들을 배출한 자랑을 안고있는 《백두산대학》에서는 초연내 배인 밀영들과 모닥불자리들이 교정이 되고 교재가 되며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빨치산군가가 교가로 울려져진다. 여기서 배운다.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내던 오종훈7현대의 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연길폭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을, 두눈을 윈수들에게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백철불굴의 정신과 혁명적관투쟁의 줄기라도 버릴수 없는 신념으로 간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계 이어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이라 생눈길을 헤치며 《백두산대학》의 학생들로 자라난 공화국인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못해낼것이 없는 강성한 인민이 되었다. 백두령장의 자욱자욱에 발걸음을 맞추며 력사의 광풍에 번쩍일수 없고 세월의 이끼에 더더욱 묻힐수 없는 위대한 전통, 위대한 정신을 심장에 조아박았고 백두산의 행군길을 곳곳이 갈것이라 는 절제와 절박을 지니고, 굵은 줄처럼 푸른 소나무의 절개, 백옥같은 불변, 참대같은 끈음으로 사는 강자들로 자라났다. 이 나라의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제재와 봉쇄를 할려면 하라, 우리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갈것이라 는 칼바람같은 대답이 나온다. 대국들의 강권과 간섭이 《정의》와 《진리》로 강요되는 오늘 현실에서 사대와 의존을 모르고 예속과 굴종을 단호히 배격하며 압박에 위축되지도, 유혹에 변절되지도 않는 공화국인민의 배양과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것처럼 인민을 떠받드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명도로 더욱 빛나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공화국인민은 자기 특유의 존엄과 재부로 간직한다.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불려주시는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을 안고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봉쇄와 압박도, 자연의 광풍도

보란듯이 이겨내며 사회주의문명을 가꾸어간다. 미래과학자거리와 령명거리, 삼지연시, 양덕은천문화휴양지, 대청리, 강북리, 걸덕...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겨울 때 자기 손으로, 자기식으로 창조하고 가꾼것이어서 금지는 하늘에 닿고 흐르는 눈물 또한 맑고 뜨거우것이라. 회열과 감격으로 분출하는 인민의 눈물속에 행복이 벽찬 오늘 의 복된 삶이 있고 비약으로 마중오는 매일의 변영이 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수많은 생령들이 황금만능에 질식되고 약육강식에 짓밟혀 사랑과 정이 화석화된 동토대에서 시들어가지만 이 땅의 주인들은 절세위인께서 생눈길을 헤치시고 열어주신 존엄사상, 인민사랑, 조국변영의 대로를 따라 강국의 기상떨치며 보다 휘황한 미래로 힘차게 달려간다. 백두산을 닮아 창공을 치솟는 메뚜기같이 담차게, 천지와 같이 순결하게, 백두의 칼바람처럼 갖은 풍파를 몰아내며 거세차게 천변만화, 천지개벽의 기적과 승리를 떨치며 21세기를 위대한 김정은세기로 빛내어간다. 백두의 행군길을 걸으며 최강의 강자로 자라난 공화국인민은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 력사의 생눈길을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로 이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백두산대학》의 첫 스승이 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장서 헤치신 생눈길에서 력사가 알지 못하는 《백두산대학》도 태어났다. 《백두산대학》, 그 이름만 들어도 애국열, 투쟁열이 끓어솟게 하는 고귀하고 벽찬 부름이다. 흔히 대학이라고 하면 전문기술 지식을 가르치는 높은 단계의 학교교육기관을 생각한다. 세계에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도 있고 위인과 명인들을 배출했으므로 하여 유명한 대학들도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 민족만대주의의 기초로 되고 열원이 되고 기치로 되는 전통과 정신, 신념과 의지를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 있었어보았는가. 빨치산 김대장과 백두광명성을 우리러바든 백두산을 지붕으로, 교단으로 하고 수많은 항일영웅들을 배출한 자랑을 안고있는 《백두산대학》에서는 초연내 배인 밀영들과 모닥불자리들이 교정이 되고 교재가 되며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빨치산군가가 교가로 울려져진다. 여기서 배운다.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내던 오종훈7현대의 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연길폭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을, 두눈을 윈수들에게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백철불굴의 정신과 혁명적관투쟁의 줄기라도 버릴수 없는 신념으로 간



2019년 촬영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

주체68(1979)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국제무대에서 톤의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통일전망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었다. 일군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 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결국 하나의 조선인가 아니면 두개의 조선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시었다. 자신께서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

을 생각하고있으며 두개의 조선을 순간도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면서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다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 라고 하시었다. 애국의 뜻어린 그이의 웅심깊은 말씀을 마디마디 뇌리에 새겨넣는 일군은 과연 위대한 장군님이시냐말 로 비뭇하고 탁월한분이시냐 하는 생각에 머리가 숙여졌다.

남녘땅을 울린 조의대표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속에 인생말년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참담계 산 남조선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이 사망하였을 때였다. 그의 사망을 두고 누구보다 비통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친히 조문도 보내주시고 화환도 잘 준비하여 조의대표단이 직접 서울에 가지고 나가도록 하시었다. 하여 2001년 3월 24일 낮 12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하늘길을 날아 서울시 청운동 그의 령전에 정중히 놓여지게 되었다. 정주영명예회장의 령전에 놓여진 조의화환, 그것은 단순한 꽃의 묶음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사상과 비념, 정경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도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번 손을 맞잡은 사람과는 끝까지 정을 나누시고 의리를 지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 민족애의 세계가 그대로 어려어있었다. 본사기자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신 남녘인민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있어서 남녘의 인민들은 비록 마음은 멀리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가까이에 두신 귀중한 존재,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있으신 겨레의 한 부분이였다. 이미 오래전에 분열된 조국 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우리 나라에서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었다 절절히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남녘동포에 대한 장군님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감동깊은 사연들이 력사의 갈피갈피 새겨져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그 갈피갈피를 더듬느라던 어느 파수중합농장을 보시면서 조국이 통일된 후 여기서 난 과실을 인천항에 실어다 놓고 남조선인민들에게 공급

하자고 하시던 자애로운 모습이 어리여오고 가물든 남반부지역이 격정되어서 거듭 전화로 날뛴을 알아보고 창밖에 쏟아져내리는 비를 바라보시며 비록 남녘땅에 비를 준것은 하늘이지만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어 오늘 밤에는 발전장을 잘것갈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정깊은 모습을 다시 비웁는 것만 같다. 어찌 그뿐인가. 관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여 당장 전경이 러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에 의하여 남조선선언이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구원된 남조선선언들을 철육의 정으로 따져가 맞아주고 보낼피주도록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해당한 대책까지 모색 취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녘겨레가 당한 불행을 두고 그리고 마음쓰시며 끼니도 건드리고 편히 쉬지 못하신 밤은 또 그 얼마이던가. 한지에 나앉은 수재인들을 생각하니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릴것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구조물자를 보내줄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도록 하시고 구조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뛰 나뛰나해도 인민들이 제일이라고,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시며 알알이 고르고 오리오리 다듬어서 보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육친적 사랑과 더불어 나라가 분열되어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막대한 량의 구조물자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닿던 가

슴뜨거운 화폭도 새겨졌다. 또 남조선의 어느 백화점이 무너져내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서는 술한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고 울고있을때에 그들이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되었다고, 정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수가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그 웅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이렇듯 친어버리와도 같이 따스하고 자애로운분이시였기에 출신과 경력, 주의주장이 달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이의 품에 찾아와 안길수 있었던것이기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민족의 최대국상을 당한지 10년이 훌렀지만 애비오장군님에 대한 격찬의 호몰과 그리움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 뜨거워만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연선

에로부터 눈은 풍작의 정조, 축복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하지만 12월에 조용히 내려쬐이는 흰눈은 어이하어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산을 쌓는것인가.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결식이 진행된 수도의 100리언도에서 장군님께서 가시던 안된다고 몸부림치던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은 그 누구에게 연줄해내라고 하여도 할수 없고 재현할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12월의 흰눈

잊을수 없는 피눈물의 12월에 눈이 많이도 내렸다. 하늘도 비분에 잠겼는가 강산을 흰빛으로 물들이며 하얗게 쏟아져내리는 눈발속에서 민족이 낳은 대성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뜻밖에 영결하게 될 큰 비애와 상실의 아픔속에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하던 이 나라 인민의 눈앞에 흰눈이 불려오는 가슴저미는 추억은 무엇이었던가. 돌이켜보면 눈보라세찬 2월의 하늘가에 봄우뢰를 터치며 탄성하시던 백두의 만년설을 밟으며 성장하시였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쉬임없이 이 어가신 현지지도강행군의 길에서 현지지도에 찬눈을 맞으며 더벅 더벅 눈을 맞으며 오셨던 분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나라앞에 엄

이 고스란히 녹아 대지에 양분으로 스며드는 흰눈처럼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짚고 불태우신 그이의 불변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그때에 고난을 박차고 주체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르고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섬유의 장쾌한 흐름, 거창한 CNC바람, 대동강파수 종합농장과 고산파수종합농장이 무도당시대의 무도당으로 솟아나는 기적적 사변들이 번발하지 않았던가. 혁명을 위하여 흰눈과 같이 심신을 다 바쳐야 한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천만로고가 흰눈에 미쳐와 인민은 이 땅의 눈비를 우리가 다 맞으리라 장군님 찬눈길 더는 걸지 마시라고 간절히 아뢰였던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흰눈을 맞으시며 인민행렬차에 오셨시었다. 그래서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눈이 오면만 12월에 내리는 흰눈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길이길이 전하며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송이 내려와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이것은 공화국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요구를 풀어주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다는 인민에 대한 복무자세, 복무관점을 뜻하는 말이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편리해하는가,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이냐 한다는 인민에 대한 복무자세, 복무관점을 뜻하는 말이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편리해하는가,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이냐 한다는 인민에 대한 복무자세, 복무관점을 뜻하는 말이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편리해하는가,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이냐 한다는 인민에 대한 복무자세, 복무관점을 뜻하는 말이다.

경도아래 공화국에서는 국가 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이 아끼없이 돌려지고있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진행되고있는 거창한 대건설사업들도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다.
문수물놀이장, 마시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유류아동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양덕은천문화휴양지, 중령남새농산물시장과 양묘장, 행복의 별천지 등 찾아오면 피해지역의 살림집들...
올해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평양의 송진, 송화지구에 공화국의 국력, 사회주의 문명을 과시하는 1만세대 살림집이 인민의 리상거리로 솟아오르고있고 풍치수려한 보통

강반에는 다락식주택구가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놓았다. 백두산아래 삼지연시에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마을들이 련이어 펼쳐졌고 걸터앉아 세계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나날이 변모되어가고있다.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던 함흥군과 홍원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피해지역들에도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수많은 단층, 다층살림집들이 일떠서 수재민들이 새집을 이룰 하는 경사가 펼쳐졌다.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 수천수만금이 아낌없이 베풀어지고있는 감동깊은 현실을 체험하며 공화국인민들은 최우선, 절대시의 참의미를 다시금 배우고 느끼었다.
본사기자 김준경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찾아라!

어린 생명을 대하는 판이한 현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우에 올라 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
이것은 근 한세기전에 이름난 아동문학작가였던 방정환이 한 말이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는것은 아니다. 남조선에서 있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들이 2살짜리 어린이의 복강경수술을 하다가 어린이의 배안에서 수술도구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문제는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의사가 고를 내기도 병원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사과를 할 대신 오히려 《하하하...》 웃으며 오만하게 돌아대며 만사판의 격분을 자아낸것이다. 의사의 말을 쓴 그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에 정성을 다하고있는 옥류아동병원의 의료일군들
계 겨우 2살 난 어린 생명이 한훈의 가치도 없는, 한갓 저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황금만능에 기초한 남조선 사회에서 무고한 어린 생명이 마구 통락당하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의료일군들이 어린 생명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아름다운 소행이 수없이 꽃피고있다.
지난해 12월 남포시에 살고있는 6살 난 리국원어린이가 옥류아동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국원이는 안면신경은 물론 온몸이 마비되고 호흡하기도 힘들어하는 최중증 상태였다.
국원이의 병상에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건강을 책임진 의료일군의 사명감을 더욱 자각하게 하였다. 수심차체의 의사협의회와 여러 중앙병원 신경과과전문가들과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합리적인 수술방법을 찾

독자문답

제카나라동포 리수희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가가는 국민소득가운데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몫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에게 현금 및 현물지출에 의한 방

조를 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파장에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노년하여 일을 못할 때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사회보장연금 및 보조금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에는 국가는 노동장애,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

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고 명기되어있다.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의 형태에는 현금 및 현금에 의한 방조(식량, 식료품, 사회보장혜택에서 노동자와 농민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로상방조(교정기구, 세바퀴차), 알맞은 일자리의 보장 등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1986년 1월 1일부터 협동농민들에게도 사회보장제를 실시하고있다.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혜택에서 노동자와 농민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몇해전 남조선언론에 해외동포가 쓴 글 《조선에는 없는 것이 많다》가 실렸다. 해외동포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조선에는 없는것이 많다. 재벌도 사치도 퇴폐도 없고 사대, 매국, 거짓말도 많다.
그리고 조선에는 좋은것이 많다. 무공해농산물과 깨끗한 환경, 오염되지 않은 언어와 문화, 보장된 식의주, 무료교육, 무상주택... 조선이 좋다는 사람들은 단지 물리적, 물질적조건때문에 조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것이 아니다. 조선이 좋아하는 동포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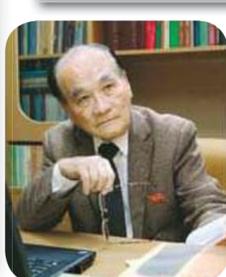
세계인민들은 조선이 옳기때문에 좋아하는것이다. 조선은 한껏 부끄러움도 없다. 조선은 옳고 정직하며 땃땃하다.
그로서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것이다. 개의 눈에는 도덕성과 존엄, 위대함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쓰레기통에 먹을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것이 개의 눈이다. 개교생하는 고단하고 절망

적인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조선은 정말 옳게 산다. 무엇보다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말이 다. 조선인민들의 하나하나

존재이다. 리상과 목표가 인간의 양식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명제들과 증거들이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단 하나의 법칙으로 족하다. 무엇이든지, 무슨 명제나 주장이든지 조선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조선이 하면 좋은것, 조선이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것》, 《조선이 옳다고 하면 옳은것, 조선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것》이다.
본사기자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고구려 언어 연구와 더불어 60여년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기본정표의 하나이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울림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문법이 짜여있는 조선어. 이렇듯 훌륭한 우리 민족어의 우수성이 오랜 세월 무엇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해왔을까? 이를 과학적으로 론증한 로교수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원인 공훈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김영환(91살) 선생이다. 60여년세월을 조선어연구에 바쳐온 그는 고구려말을 기본틀기로 하는 우리 민족어의 발전력을 새롭게 정립하여 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고전문헌을 모두 읽을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이 옛 우리 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주제성, 민족성이 구현된 역사문헌의 작품을 창작하는데도 사정이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오랜 세월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집필한 사적이지만 부족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선조들이 이룩한 언어연구의 성과를 넘겨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다는 역사적사실에 비추어볼 때 어느 지방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고구려의 언어를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었다.

이렇듯 우리 말의 우수성을 빛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김영환선생은 평양 문화어를 기준으로 하여 고구려의 언어를 연구한 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구려어 연구》를 성과적으로 집필할수 있었다.

김영환선생은 국제학술대회와 외국어 여러 대학을 초청되어 조선어가 고구려말을 기본틀기로 하여 발전공부화되는데 대하여 학술적으로 론증하였다.

그럼 그에게 있어서 인민군대의 서울해방은 운명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해방된 남조선에 실시된 인민적시책들을 통하여 진정한 조국어디에 있는가를 체험한 그는 고마운 그 품을 지키기 위해 남민족어 연구에 입대하였다.

민족의 재보 《중세조선말사전》

취체자로 김영환선생을 찾으니 따스한 해설이 비쳐지는 방에서 집필이 여념이 없었다. 아흔고개를 넘겨도 혈색은은 얼굴이며 젊은 시절의 열정이 엿보이는 그의 모습은 로당익자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케 했다. 책들이 수북이 놓여있는 책상우에서 한권의 책이 유유히 꺼내졌다. 그가 집필하여 최근에 발행한 《중세조선말사전》이었다.

《중세조선말사전》은 15세기 문헌정음이 창제된 후부터 19세기까지 나왔던 여러 국문문헌과 국문문학작품에 올라있는 우리 말어휘를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밖에 그 이전시기 중세고전문헌과 국문문학작품에 올라있는 리두식 표기문헌과 당시 훈회 쓰이던 한자성구, 중세 우리 선조들의 비술어, 사람이름 등도 포괄범위를 훨씬 넓혀 모두 올림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김영환선생은 《중세조선말사전》은 15세기 문헌정음이 창제된 후부터 19세기까지 나왔던 여러 국문문헌과 국문문학작품에 올라있는 우리 말어휘를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밖에 그 이전시기 중세고전문헌과 국문문학작품에 올라있는 리두식 표기문헌과 당시 훈회 쓰이던 한자성구, 중세 우리 선조들의 비술어, 사람이름 등도 포괄범위를 훨씬 넓혀 모두 올림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위대한 스승을 모시어 나라의 고구려라는것, 우리의 언어학자들이 주제적립장에서 조선어의 단일성과 고유성을 깊이있게 밝히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그에게 있어서 력사언어학을 단순한 학문으로가 아니라 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날마다 받아가는 예리한 수단으로 되게 하는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다.》

《그외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조선어연구를 철저히 주제적립장에서 해나갈 마음속결의를 다지며 김영환선생은 《조선어발달사》를 집필수정하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달라붙었다고 한다.》

《그때 외국의 언어학자들 속에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조선민족어발달에서 고구려어어가 기본틀기로 되었다는것이 정설로 되었다.》

《그때 외국의 언어학자들 속에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조선민족어발달에서 고구려어어가 기본틀기로 되었다는것이 정설로 되었다.》

《그때 외국의 언어학자들 속에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조선민족어발달에서 고구려어어가 기본틀기로 되었다는것이 정설로 되었다.》

북한소년과 북한소녀의 생활의례

조선로동당창건 76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자재의 힘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비친 산업미술도안들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소학교학생교복도안

소학교학생교복도안은 장난세찬 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색깔과 형식으로 되어있다. 녀학생여름교복은 달린옷형식으로, 남학생여름교복은 T자쓰와 반바지형식으로, 봄가을교복은 옷웃이 세타로 되어있다. 색깔은 대조를 이루는 연분홍색과 흰색, 연푸른색으로 되어있다.



초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

초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은 이 시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소학교학생교복에 비해 비교적 무게감있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여름교복은 옷웃은 흰색으로, 치마와 바지는 진한 자주색과 곤청색으로 대조가 뚜렷하게 되어있다. 봄가을교복은 자주색과 곤청색으로 되어있다.

고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

고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은 젊음이 넘쳐나는 이 시기 학생들의 특성을 색과 형식으로 잘 살리었다. 도안은 남녀옷이 제각기형식으로 되어있어 사회에 진출하여 희망과 포부를 펼쳐가려는 고급중학교학생들의 열망을 보여준다.

(2)



대학생교복도안

대학생교복도안은 청년대학생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잘 나타나게 고상하면서도 절제된 색과 형식으로 되어있다. 특징적인것은 녀학생교복에 장식리본이 있어 세련된 느낌을 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 다섯차례나 세계신기록을 세운 리성희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가운데는 처녀힘장사로 명성을 떨친 리기선수 리성희도 있다. 1999년 11월 그리스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녀자력기선수권대회 58kg급경기에 출전한 그는 추켜올리기에서 6분특기인 빠른 순간체기와

이전에 자기가 세웠던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종합1등을 쟁취하였다. 당시 언론들은 리성희를 《처녀힘장사》라고 보도하였다. 2000년 5월에 진행된 제13차 아시아녀자력기선수권대회 58kg급경기에서도 그는 추켜올리기에서 한번들기

이 추켜올리기에서 최고 무게인 122.5kg을 들어올렸다. 언론들은 《기록제조기》라고 불리우는 리성희의 힘은 명성그대로였다. 《102.5kg 짜리가 리성희의 머리에 올려지는 순간 세상은 그의 발 밑에 놓였다》고 경탄하면서 경기 전 과정을 상세히 전하였다. 제15차 세계녀자력기선수권대회는 말그대로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승리의 신심을 안고 경기장에 나선 리성희선수수는 끌어올리기에서 차지있는 순간체기로 두번째 순위에 있는 선수보다 2.5kg이나 더 많이 들어올렸으며 추켜올리기에서 강한 추기로 127.5kg을 성공시킴으로써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다섯차례나 세계신기록을 세운 그에게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인민체육인칭호가 수여되었다. 본사기자

실효성이 큰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 《날개》

공화국의 교육도서출판사와 창명정보기술교류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 《날개》(소학교 1학년-5학년)가 인기를 모으고있다.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 《날개》는 소학교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제작된 과외학습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실과 시험장, 성적표, 수수께끼 및 유모아편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매 문제에 풀이방향과

답을 주고 미처 이해하지 못한 문제에 한해서는 답에서 풀이과정을 알려준다. 그리고 매 문제에 따르는 점수평가를 자체로 받을수 있어 혼자자서도 모든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게 되어있다. 한편 시험장에서는 학생들이 해당한 장에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게 하여 자기의 학습정형에 대한 즉시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다. 성적표에서는 도표와 날개자에 따르는 성적표를 게시하여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높아진 정도를 스스로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준다. 평천구역 봉학소학교의 한 교원은 많은 학생들이 《날개》프로그램을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수학문제풀이에 심취되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편리한 대면부, 실력을 평가하는 점수의 정확성도 마음에 들지만 그보다 학년별교육과정에 따라 해당한 장을 선택하여 복습할수 있게 만든 것이 좋다고 하였다. 한 학부모는 이 프로그램이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를 매겨며 틀린 점



겨울철에 발을 덥게 건사하려면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사람들은 발이 찬감을 느끼게 된다.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발을 덥게 건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양말과 신발을 잘 선택해야 한다.
- 발이 젖었다면 제때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특히 발가락사이에 주의의 피순환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 술이나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피우지 말아야 한다.
- 목마른감이 없다고 하여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 발이 젖었다면 제때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특히 발가락사이에 주의의 피순환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 술이나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피우지 말아야 한다.
- 목마른감이 없다고 하여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속담과 뜻

◆ 꽃이 말하지 않아도 나비는 절로 온다
꽃은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내뿜는 향기를 쫓아 나비들이 날아든다는 뜻으로서 사람은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더욱 힘있는 존재로 됨을 비겨 이르는 말.
◆ 사항노루 지나는데 절로 향기난다
훌륭한 사람의 행적은 다 훌륭하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웃으며 하는 인제나 통근데

어느 겨울날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사람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동지가 지나더니 해가 길어지는게 하루가 다르게 알려주만.》 《글쎄요. 해가 길어지긴 길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도록 날이 어두워지진 않은걸 보나...》 이 말을 들은 명수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내 눈에는 해가 언제나 동글게 보이는데 어른들은 왜 길어졌다고 하나요?》

선죽교

선죽교는 개성시 선죽동의 로계천에 놓여있는 고려시기의 돌다리이다. 선죽교는 길이 8.35m, 너비 3.36m로서 크기 없이도 고려말기의 봉건관료이며 유학자인 정몽주 리성제일과



1780년 정몽주의 후손 정호인이 개성류수로 있으면서 선죽교우에 돌판간을 돌려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옆에 새로 돌다리를 놓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전해오고있다. 다리옆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명필인 석부 한호가 쓴 《선죽교》라는 비석이 있고 1641년에 정몽주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성인비(읍비), 1796년과 1824년에 세운 특사비가 있으며 다리의 서편에는 표충비가 있다. 선죽교는 지금 남은 우리나라의 돌다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것의 하나로서 당시의 건축술과 돌다리기기술을 연구하는데 참고로 된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입문소나무는 황해북도 곡산군 동산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소나무가 동산리 정계동입구에 있다고 하여 입문소나무라고 한다. 입문소나무는 1690년경부터 저절로 자란것으로서 마을사람들의 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입문소나무는 모두 다섯그루인데 세그루는 3m간격으로 남북방향으로 서있으며 한그루는 북쪽으로 5m 떨어져 서있고 또 다른 한



보쌈김치 (4)

대감의 행차가 떠나간 후 고분이는 웬 일인지 마음이 불안하였다. 어수선한 흥동가을집에 매여살아도 부엌 깊숙이 박혀있으니 그 누구도 시끄럽게 굴지 않아서 좋았는데 대감에서 큰 판리가 나와 살피고 보고 갔으니 이제 무슨 불집이 터질지 알수 없는것이였다. 아니나 다를가 설을 며칠 앞둔 어느날, 한양대감집에서 우악스러운 하인배들이 빈 가마 한틀을 메고 돌게 바람을 일으켜 들이닥치더니 《대감님부부》라고 하면서 주인평감을 꼼짝 못하게 옥박질러놓고 광방에서 아직 헤치 않은 새 김치독 한개와 고분이를 처신고 한양으로 달아났다. 설날 아침 경복궁 어느 한편전(왕이 평상시 거처하는 전각)에서 임금의 수라상을 받았다. 전례대로 하는 설날 궁중의식을 끝낸 후 비빈들과 왕자, 공주 등 왕실안팎이 모

두 세배를 올리고 물러간 뒤 산해진미로 가득찬 수라상을 마주하고있을 임금의 옥돌을 품들여 다듬은 귀얄이용배기에 낫선 음식이 담겨있는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이나?》 임금이 묻자 수라상을 맡은 궁녀가 제바르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보쌈김치라 이르는것이오네 내자시(궁궐에서 쓰는 식료품관리와 연회등을 맡은 관직) 최대감께서 보쌈김치를 세간으로 진상한 덕분에 임금의 환심을 산 최대감은 그후 벼슬이 한글 훈쩍 올라갔다. 그러자 왕궁관리들과 내시, 궁녀들까지 수군수군, 키득키득하니 어느새 최대감에게 《보쌈김치대감》이라는 별명이 붙여버렸다. 최대감이 《보쌈김치대감》이 되든말든 그것은 별로 이를만한 일이 못되지만 보쌈김치가 임금에게 알려져 임금이 관심하는 식찬이 된것



한해가 저물지만 계속 핏기는 전쟁화약내

시론

최근 일본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극우분열을 더욱 로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얼마전에 있는 립시국회에서는 일본수상은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력설하였다.

그런가 하면 선인자들이 내외의 반발을 의식하여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헌법개정문제를 꺼리낌 없이 들고나왔다.

일본이라는 독사의 몸통아리에서 군국주의부활과 복수심, 재침야망이 꿈틀거리고있는것이다.

한때 일본은 세계앞에서 《평화국가》로 자처해왔다. 그러나 오는 일본을 《평화국가》로 믿는 나라는 없다.

일본이 전쟁광기가 가득한 망동만을 한사코 끌어서 하고있기 때문이다.

도적은 감감한 밤만 꿈꾼다고 자나깨나 재침의 포성을 울릴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일본은 우리 민족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로부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있다.

최근 일본이 그 무슨 《독도보복림》이라는것을 가동한것은 또 하나의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독도령유권》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정세 및 일본군정노예배상관결문제를 비롯하여 남조선에 대한 폭넓은 분야에서의 제재로 《교토》를 줄것을 목적으로 조작된 《독도보복림》은 말그대로 일본의 라민족배타주의와 재침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해준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이 령도평창, 재침야망열에 들뜬 군국주의후예들과의 《미래지향》을 운운하며 대일저자세를 취하고있으니 얼마나 한심한노릇인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독자에게 손을 내밀면 독이발에 물림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참혹할뿐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독도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독이발을 완전히 드러낸 군국주의독사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각성해야 한다는것을 시사하는 오늘이다.

주광일

한해가 다 저무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그칠줄 모르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2021년 말발전군주요지위환회의》도 그 연장이다.

거기에서는 다음해의 국방태세확립, 《한미동맹》발전 및 국방협력강화, 《국방개혁 2.0》추진 및 미래국방력량구축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은 한해 첨예했던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엄청난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대결적용계이며 다음해에도 여전히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 전쟁대결을 지속시키려는 위협천만한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하는 공중이만 보아도 그러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군원이 무엇이고 그 발원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한해가 다 저물지만 계속 핏기는 전쟁화약내

바람직한 동맹인가.》 남조선선심성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군부호전세력이 《동맹》타령을 외우는것은 미국의 전쟁수인노릇을 계속하려는, 남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외세의 전초기지, 발전기지로 영원히 삼겨바치려 하는 사대노예적성과 동족대결본성의 발로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민족만이 아닌 인류의 지향이며 대세로 되고있다. 년말까지 이어지는 동족대결, 전쟁대결의 모의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는가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동맹에 날아드는 부나비를 보고 용감하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무모하다고 한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 죽기때문이다.

본기자 김 광혁



반미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모략에 이끌리 난 사이비언론들

최근 남조선에서는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야기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등 북남관계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 온 보수언론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보수세력의 지휘조종밑에 동족을 헐뜯는 선전물들을 대량생산해내군 하였다.

특히 보수매문지들은 이미 전부터 파썸독재권력의 시녀, 동족대결의 나팔수로 전락되어 붓의 끝을 버리고 외국의 력사를 기록해왔다.

2015년말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이 《남남갈등을 부

추기고있다.》는 모략보도까지 류포시키고 박근혜헌사태를 《총복》의 모자를 쓴 《조복세력의 환동》으로 몰아간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런가 하면 《비국적인 인권상황》, 《기아》, 《멸악한 인권실태》 등 외세의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불어대는 《탈북자》쓰레기들의 반공화국모략나팔도 그대로 받아먹고 하며 그런 언론이 민심의 버림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바로 동족을 헐뜯는 선전물들을 조작, 날조, 생산하여 여론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보수언론들이 그러한 매문지인 것이다.

지난 12월 15일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매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은 기자회견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언론들은 유가부수를 조작해수천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도둑질한것도 모자라 대선정국에 가짜뉴스, 허위조작날조기사로 유권자의 판단을 외곡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조중동》매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에서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요구에 역행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보수언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주장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본기자 류현철

알려진것처럼 《대진림》소속 대학생들의 투쟁은 남조선을 타고왔아 불법무도한 온갖 범죄를 다 감행하면서도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미국의

은 《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대행진》,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 일본의 독도강탈야망반대투쟁,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결성을

대결이 《적법》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가 《미군유지비인상을 강력한 외세에게는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항의할 시위는 범죄로 몰아붙이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요구와 자존심마저 가두고있다.》고 격분을 표시한것이다.

자주와 정의를 《위법》으로 매도하는 《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적 망령을 력사의 무덤에 한시바삐 처넣어야 한다는 남녘민심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것이다.

본기자 안권일

정의를 위한 칼부림

남강도적행위에 대한 준법한 규탄이고 그에 추종하는 친미사대세력에 대한 타메이다. 라이언이 남의 집에 뛰어들어 오만하게 놀아대는것도 모자라 강탈을 하였다는데 내쫓기는 고사하고 속도 못한다면 벌써 주인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지난 시기에 《대진림》

비롯하여 외세의 간섭과 전횡, 사대매국세력의 독재부활과 동족대결책동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을 반영한 투쟁을 활발히 벌여왔다.

그들의 투쟁은 지극히 찬양받아야 할 의로운 장거분 명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락인되고 사대와 동족

본기자 안권일



남조선에서 올해를 특징짓는 4자성으로 《묘서동처》(猫鼠同處)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게 살았다는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이 4자성이 선정된것은 정치권과 사회일반에서 《법》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개인의 리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불공정과 불평등을 더욱 조장시키는 남조선의 현실태를 반영하였기때문이라고

부패사회에 대한 민심의 평가

다들 수 있다. 대장동계발투해의혹만 보아도 그 사건에 얽힌 인물들이 다 드러나지 않은것으로 하여 여야당사이에 특검론의가 쟁점으로 되고 《대선》판을 달구는 요인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게 살았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본기자 한일혁

남조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당들사이의 치고받기가 격화되면서 정국이 점점 더 수라장이 되여간다고 한다.

현재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은 《민심잡기》를 위해 지방순회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담당회, 선심성공작 람방, 시장나눔을 등 저마다 자기 몸값을 부쩍 올리기를 위해 입과 발이 분주한 속에 여야당은 그들대로 상대편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의 도수도 높이고있는중이다.

대표적인것이 대장동계발투해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도입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실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특검을 주장하고있다.

간단히 말하면 더불어 민주당은 인사추천권을 틀어쥐고 단시일내에 끝내자는것이기에 《국민의힘》은 수사인원, 수사기간을 늘리자는것이 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돈받은 사람》(국민의힘) 인사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특검추천권을 주거나 공기를돌려 다 루겠다는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받을수 없는 제안으로 시간갈기》한다고 대꾸질이다.

참거나 방거나 모로 기기는 마찬가지로 둘 다 저들이 주도권을 쥐자는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은 계속하면서 량당은 정작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한바탕하는 말잔치에 국민이 먹을 음식이 없는셈》이라고 싸잡아 비난한다.

윤석열의 부정부패문제도 여전히 치고받기에 맞는 《공》이다.

더우기 최근에는 장모가 부패혐의로 실형을 받은데다 처의 리력기만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것들은 변호를 하느라 급급하다나니 도적이 도적을 알아보고 가재와 게는 한판이라는 속도 먹는다.

어느 한 정치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폐기를 실은 배》로 비유하며 《70년 적폐덩어리 친일잔재가 남아있는 곳에서 대장노릇하다가 권력을 탐라려 출몰했다.》, 《부패고철을 한가득 실은 그 배는 반드시 뒤집어질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조선에서 민생은 여전히 고달프다.

희생의 가마는 나락에 묻히고있는데 정객들은 리속문제도 전횡장속의 개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그들이 빈말로나마 운운하던 《민생, 공경, 정의》라는것도 진흙탕속에 묻히지 오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본기자 전명진

망언후보, 무능후보에 대한 분노의 표시

- 남조선대 학생들의 대자보게시투쟁 활발 -

《안녕하십니까》 사람들 호상간에 만났을 때 흔히 레와와 존경의 표시로 하는 이 인사말이 한때 남조선에서는 보수 《정권》의 반인민적행위를 풍자, 비판하는 대자보의 제목으로 유명했었다.

《살기 힘들데 안녕하십니까.》, 《《총복》으로 탄압당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동북매문》에 안녕하십니까.》... 《세월》호참사와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때에도 이 말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웠었다.

요즘 남조선의 대학들에서 벌어지고있는 대자보게시내용은 제 처지도 모르고 보수 《정권》을 세우겠다고 물뎀 병술뎀병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에 대한것이라고 한다.

《1일1망언》으로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는 무능야, 살인악당인 군부독재자를 비호 두둔하며 독재를 망상하는 악한, 본인, 가족, 친척, 수하들등 안락하여 부패의 악취를 풀풀 날리는 패륜패덕 한이라는것이 바로 윤석열에 대한 남조선청년들의 평가다.

그것이 그대로 대자보게시투쟁으로 표출된것이다.

지난 11월 한달만 보아도 전두환을 옹호하는 망언과 《개사과사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광주방문을 앞두고 이 지역 대학들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대자보들이 게시되고 있다.

광주 조선대학교 교내에 게시된 《윤석열은 광주에 오지 말고 사퇴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도 그 하나이다.

《군부독재를 찬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윤석열이 2020년 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의이다.》, 《이런것은 대선 후보자격도 없고 광주를 방면해 거짓것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 《사과라고 사퇴하라》 대자보의 내용 하나하나가 윤석열에 대한 규탄이 력력하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의 대학생들은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대통령후보란 사람이 망



단 평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뭐하는 것거리냐.》 참가자들이 격분을 터뜨려 두 뒤돌아보지 않고 달아난 윤석열, 생중계를 위해 동행했던 보수언론매체도 아연하여 그 동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한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살리겠다고 말은 번지르르하던데 윤석열이 돌아치며 하는 꼴이란 이렇게 얼골팔기뿐이다.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 민심을 알수 없을것이고 민심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의 희망을 살리고 삶을 보듬어줄수 있겠는가.

그런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고있으니 얼마나 황당한가.

한복순